

#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낙농경영인회가 주관하는 '2006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1989년 '고능력 젖소평가를 겸한 경매행사'로 출범한 한국홀스타인 품평회는 그동안 IMF와 구제역으로 1998년과 2000년·2002년 등 세 차례 쉬고 매년 개최됐다.

인생에 비유하면 사춘기 소년이라 할 수 있지만, 강산이 한번 반이나 바뀌는 세월이어서 출품우의 능력과 체형은 눈부시게 향상됐고 순치도 잘되어 출품우가 품평회장에서 이리 저리 뛰는 광경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품평회를 뜨겁게! 챔피언을 품안에!'라는 슬로건 아래 이 달 18일·19일 양일동안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열릴 올해 품평회는 지역에서 사전에 엄선한 우수한 등록우 1백80여두가 12부로 나뉘어 향토와 목장의 명예를 걸고 출품될 예정으로 그랜드챔피언 등 상위입상을 향한 경합이 뜨거울 전망이다.

포천·이천·양주지역은 지난 9월 지자체에서 각각 수천만원 씩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축협의 협조아래 성공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고, 상위 입상한 개체들을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출품할 방침이다. 고양·안성·과주·여주·평창·평택·화성·영암·정읍·예산 등지는 출품 농가를 대상으로 털깎기, 순치 교육을 마치는 등 전국품평회 출품체비는 올인 상태다.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우의 자격은 혈통등록된 소로 초임우, 육성우는 어미소의 산유량이 305일보정 1만kg이상이거나 유단백량 3백20kg이상인 후대축들이다. 위생조건도 브루셀라, 결핵, 요네병 등 법정전염병과 진균증 등 피부병이 없는 개체들이 출품된다.



조용환 편집상무  
축산신문사

한국홀스타인품평회의 규모와  
행사진행의 수준을 앞으로  
美테어리엑스포, 英로얄쇼,  
日홀스타인공진회 등에  
비금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보조비를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

다만 올해 품평회도 행사기간이 짧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美테어리엑스포와 日홀스타인공진회 행사기간은 각각 4박5일과 3박4일인 반면 우리는 1박2일로 출품업체의 경우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만만찮아 행사기간을 2박3일 정도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이 낙농국임을 과시하듯 메디슨 실내행사장 3층 곳곳에까지 7백여 축산기구업체들이 진을 치고 전시를 한다. 참관인도 65만명을 상회한다. 일본 홀스타인공진회 참관인도 70만명 내외인데 비해 국내 품평회 참관인은 5천명 정도다.

또 선진국은 실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는 가축시장이나 운동장등 실외에서 치르는 관계로 행사기간에 비가 오면 참관인들은 또다시 비를 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것이다. 다만 양주시 젓소검정협회가 국내 최초로 실내행사장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 공연장에서 9월29일 품평회를 개최하여 많은 낙농가로부터 부러움을 얻고 참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따라서 종축개량협회와 낙농경영인회는 앞으로 관계당국과 실내행사장 건립을 위해 꾸준히 협의하고 성금을 조성했으면 한다.

아무튼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앞으로 양과 질적으로 보다 성장하려면 검정회와 지역품평회가 활성화되어 우수한 개체가 보다 많이 중앙대회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축협의 예산이 보다 늘어났으면 한다.

아울러 앞에서도 언급한바 처럼 한국홀스타인품평회의 규모와 행사진행의 수준을 앞으로 美테어리엑스포, 英로얄쇼, 日홀스타인공진회 등에 비금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보조비를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

어쨌든 보름전으로 임박해 있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전국의 낙농인과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의 축제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서 선진국으로 한 계단 올라섰으면 한다.